

MARKET STRATEGY

2026. 1. 29

글로벌투자전략팀

양일우 수석연구위원
iw.yang@samsung.com

박주란 연구원
juran.park@samsung.com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삼성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 2026년 2월 |

주가 모멘텀의 확산

2월 한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주가 모멘텀의 확산 - 지수보다는 업종 선택이 고민되는 시기

한국 주식시장 2월 핵심 변수로서 1) 신흥시장 강세, 2)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 3) 주가 상승 업종의 확산 제시

당사 유동성 모델에 따르면 금융시장 유동성은 전월 대비 2% 수준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미국 금융시장의 자금 유입도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보다 신흥 시장의 자금 유입이 더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미국 정부의 타국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금융시장은 미국 증시에 불리한 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

반도체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확장되면서 한국 증시 이익 모멘텀도 강세를 지속.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진다면, 반도체 가격 상승세도 시차를 두고 둔화될 수 있겠으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도 부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미국 고용 부진이 심화된다면 AI 발전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등장할 수 있겠으나, 최근 고용 수치는 오히려 안정화 추세

2월은 실적 이상으로 수급에 관심을 가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1)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 되는 시기이고, 2) KOSDAQ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3) 원자재 가격 상승, 4) 중국 등 신흥시장 모멘텀 개선, 5) 환율의 방향 전환 등이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한편, 현대차 그룹의 로봇 역량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로봇이 화두가 될 때마다 한국 자동차 업종 주가 상승이 가능해졌다고 판단

KOSPI의 ROE가 한 달 동안 12.6%에서 13.2%로 다시 한 번 크게 상승하면서 적정 12개월 예상 P/B가 2.1배로 상승. ROE 13.2%의 ROE를 10% 할인한 11.9%에 적정한 P/B 1.8배를 적용한 6,300pt로 연간 KOSPI 상단을 상향 조정. ROE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높아 공격적인 수치라고 판단되지 않음. 현재 수준의 유동성 확장 속도를 보이기 시작한 2018년 연초 이후 KOSPI P/E 평균인 10.7배를 적용한 5,100pt를 2월 밴드의 하단으로 제시. Top pick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NAVER, 효성중공업, 한국금융지주, 삼성E&A, 풍산, SK케미칼 제시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전략팀
양일우 수석연구위원
iw.yang@samsung.com

REPORT CONTENTS

01	주식시장 전망	04p
----	---------	-----

02	업종 전략	20p
----	-------	-----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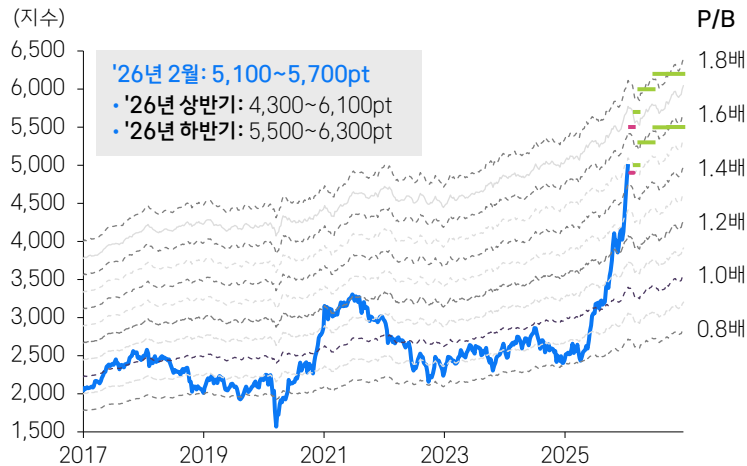
주식시장 전망

2월 KOSPI 전망: 5,100~5,700pt

▶ 2월 KOSPI의 적정 지수 밴드로 5,100~5,700pt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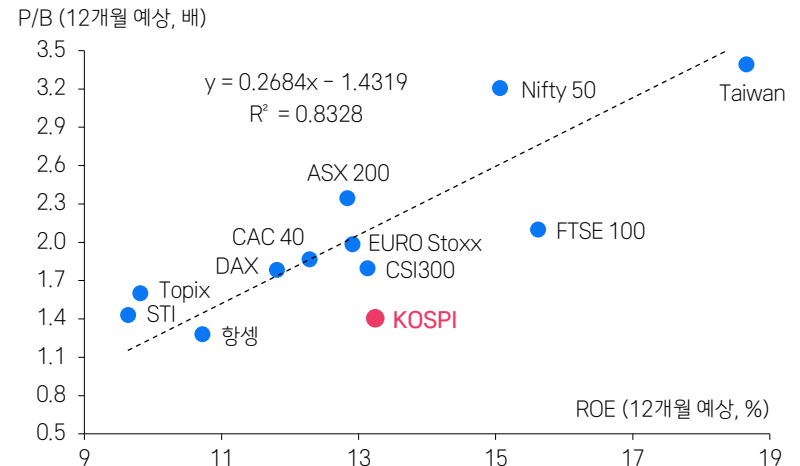
- 글로벌 COE가 9.2%로 전월 대비 0.2%p 낮아진 가운데, KOSPI ROE는 13.2%로 전월 대비 1.4%p 상승하면서 적정 P/B도 2.1배로 상승
- 13.2%의 ROE를 10% 할인한 11.9%에 적절한 P/B 1.8배를 적용한 6,300pt로 연간 KOSPI 상단을 상향 조정
- 현재 수준의 유동성 확장 속도를 경험하기 시작한 2018년 연초 이후 KOSPI P/E 평균 10.7배를 적용한 5,100pt를 2월 밴드의 하단으로 제시

2026년 KOSPI 전망



참고: '26년 1월 26일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글로벌 증시 RO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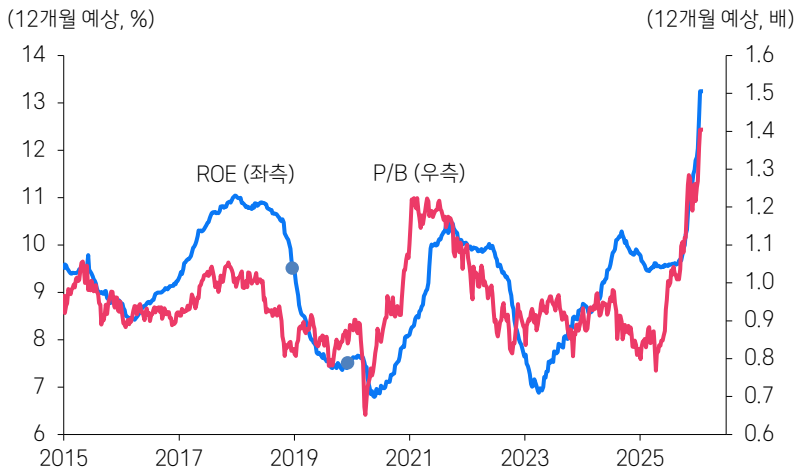
참고: '26년 1월 26일 기준, S&P 500은 ROE 20.8%, P/B 4.8배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밸류에이션 확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 ROE의 상승은 P/E 밸류에이션도 확장시키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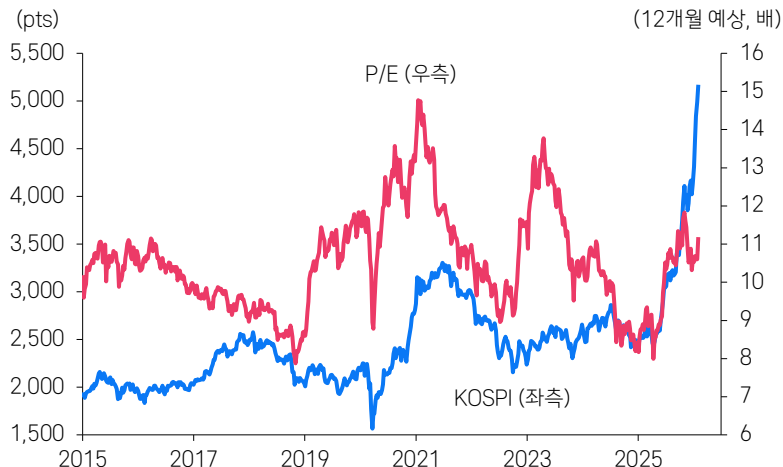
- 12개월 예상 ROE가 13%를 상회하기 시작.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그럼에도 시장이 적용하는 P/E는 11배 수준. 그러나, ROE가 상승하면 적용 P/E도 높아져야 함. 성장률이 ROE의 함수이기 때문 (5페이지 오른쪽 차트에서 P/E는 원점으로부터의 기울기임. 차트의 Y-절편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은 ROE가 높아지면 P/E도 높아짐을 암시)
- 다만, 이익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함. 1)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2)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확장 수준이 중요할 것

KOSPI ROE와 P/B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KOSPI 지수와 PER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1월에도 강력한 상승세를 보인 한국 증시

▶ 1월 글로벌 증시 연초 강한 상승 출발 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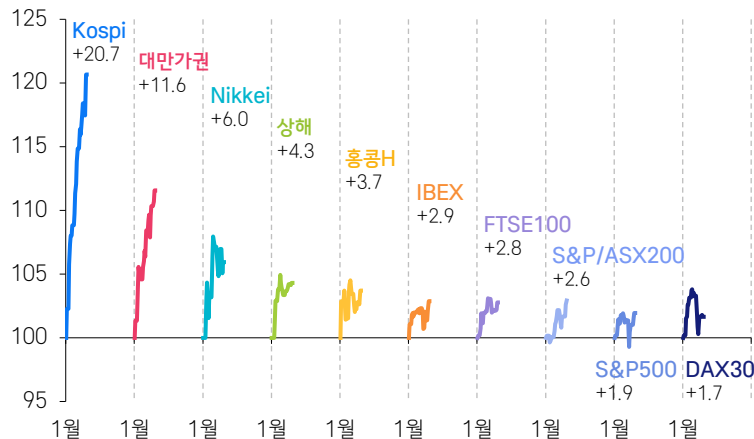
- 연초 CES 2026 이벤트로 하드웨어 기업 강세 시현하며 한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성과가 유럽, 미국 선진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

▶ 대부분의 주요 증시는 밸류에이션 확장이, 한국의 경우 이익 전망치 상향조정이 주가 상승에 더 많이 기여

- 한국 증시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정도는 심해짐

글로벌 증시 performance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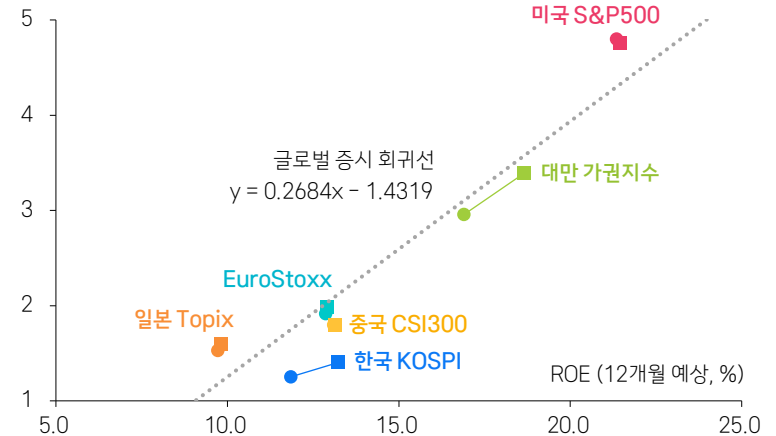
(2026.01.01=100)



참고: 연초 이후 1월 27일 종가 기준, IBEX(스페인), FTSE100(영국), S&P/ASX200(호주)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글로벌 증시 ROE와 P/B (최근 한 달 간 변화)

P/B (12개월 예상, 배)



참고: 네모는 2026년 1월 23일, 동그라미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2월에도 글로벌 증시에 대한 위험 선호 유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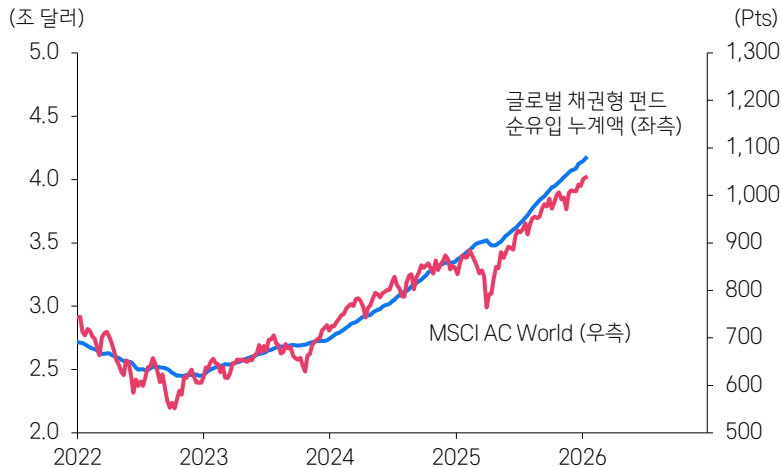
▶ 2월에도 양호한 상승세 지속 전망. 유동성 환경 양호하기 때문

- 월간 2% 수준의 주가 상승이 기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유동성 환경

▶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의 아웃퍼폼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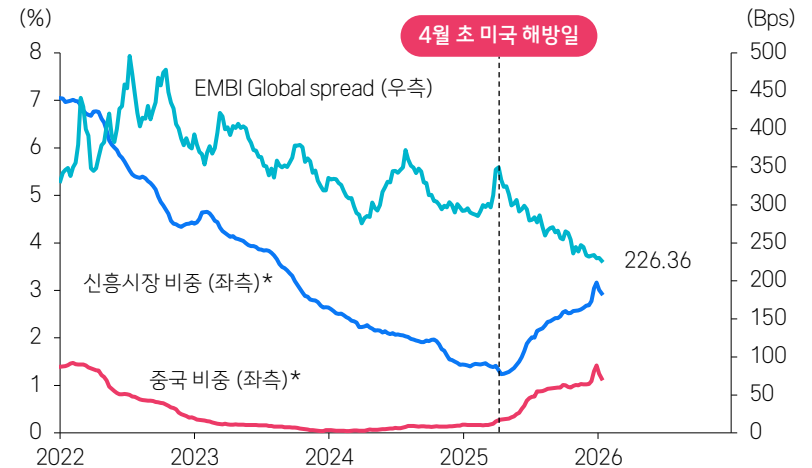
- 미국 정부의 '25년 4월 관세 정책 이후 자금 흐름은 오히려 신흥시장에 유리하게 전개 중
- EMBI 글로벌 스프레드(신흥국 채권의 추가 금리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 하락은 신흥 시장의 상대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글로벌 채권형 펀드 순유입 누계액 vs MSCI AC World



자료: LSEG Workspace, EPFR, 삼성증권

채권형 펀드 순유입 누계액 지역별 비중과 EMBI global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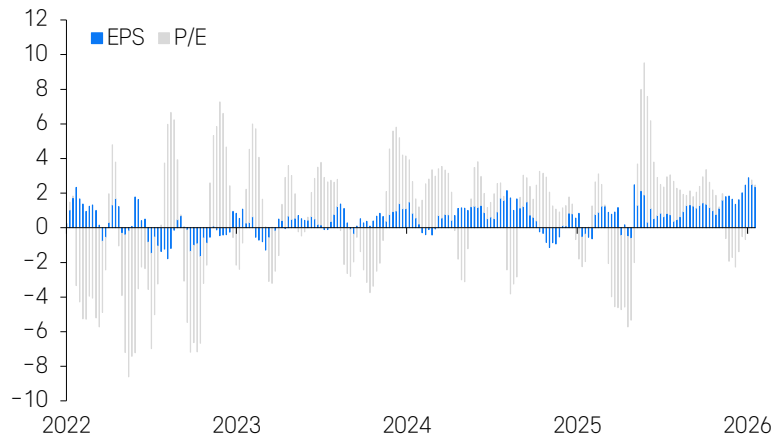
참고: * 글로벌 전체 금액(왼쪽 차트 파랑색) 대비 비중
자료: EPFR, 삼성증권

밸류에이션보다 이익 성장의 설명력이 높아진 글로벌 증시

- ▶ 월간 2% 수준의 이익 전망치 상향조정이 글로벌 증시를 견인. 이는 글로벌 증시 체질이 허약하지 않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음
 - 전월 대비 2% 수준의 이익 증가율은 팬데믹 이후로는 처음
- ▶ 국가별로는 IT하드웨어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가 주요 증시를 압도

MSCI 지수 전월 대비 변동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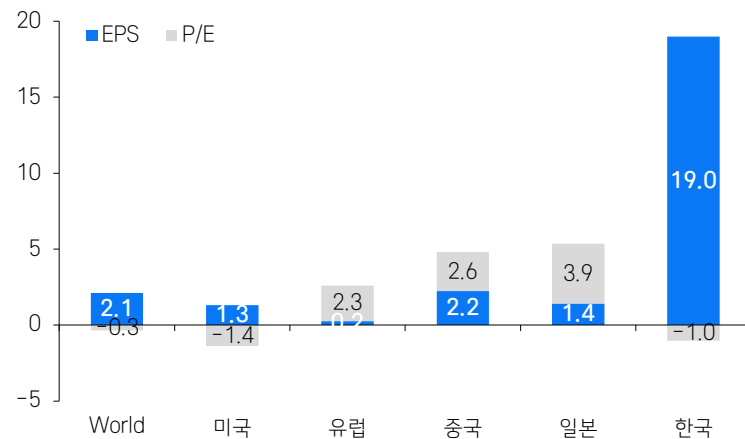
(전월 대비, 4주 이동평균, %)



참고: '26년 1월 23일, 12개월 예상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MSCI 지수 전월 대비 변동 요인 (국가 별)

(전월 대비, %)



참고: '26년 1월 23일, 12개월 예상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한국 시장에 부정적이지 않은 매크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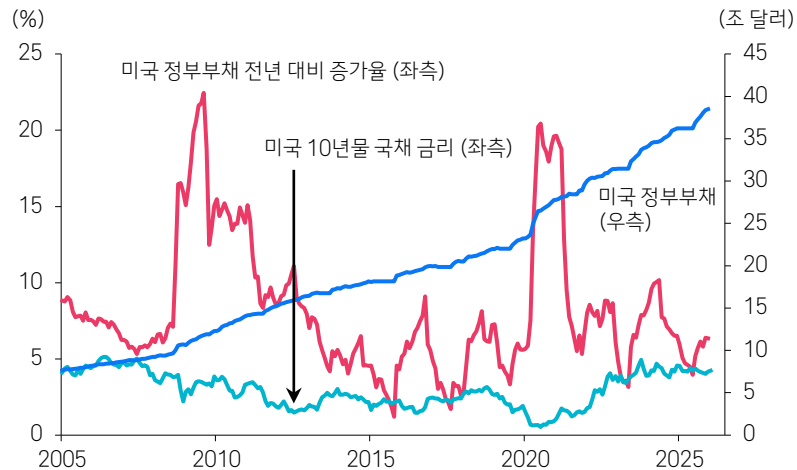
▶ 미국 정부 부채 증가율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비해 높음

- 미국 국채 보유보다 유리한 투자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 일드갭이 낮아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확장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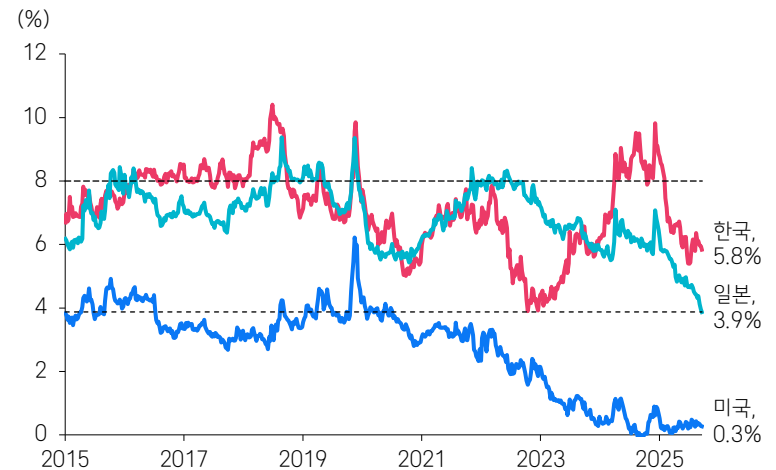
- 한국은 1) 과거 대비, 2) 다른 나라 대비, 3) 절대적인 측면에서 일드갭 여유 있는 상태

미국 정부 부채와 10년물 국채 금리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한, 미, 일 일드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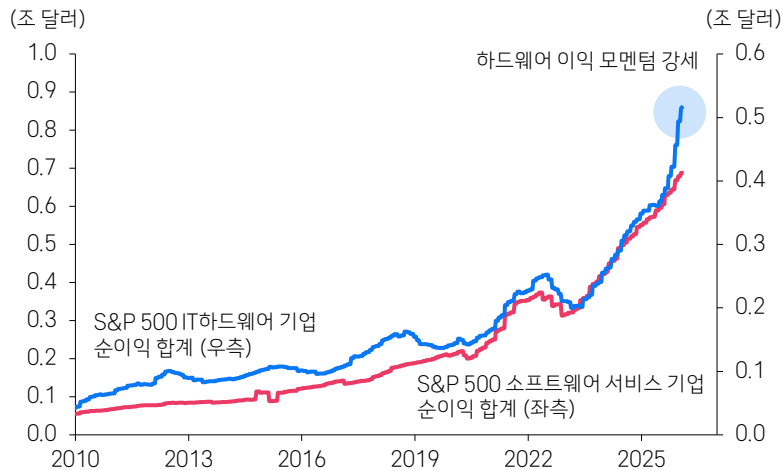
참고: * 12개월 예상 P/E의 역수 -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1월 23일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하드웨어가 견인하는 시장은 한국 증시에 유리

▶ 최근 한 달 동안 테크 내에서는 IT 소프트웨어(SW)보다 IT 하드웨어(HW)의 이익 모멘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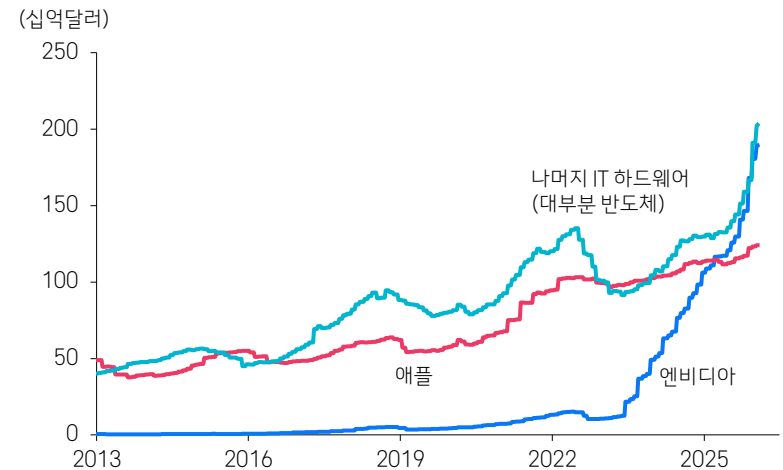
- 엔비디아만 상승하던 국면에서 다른 반도체 기업도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
- 그렇다고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지 않는 것은 아님
- HW의 이익 모멘텀 강세는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

S&P 500 IT 12개월 예상 순이익 전망치 (하드웨어 vs 소프트웨어)



자료: EPFR, LSEG Workspace, 삼성증권

S&P500 IT 하드웨어 12개월 예상 순이익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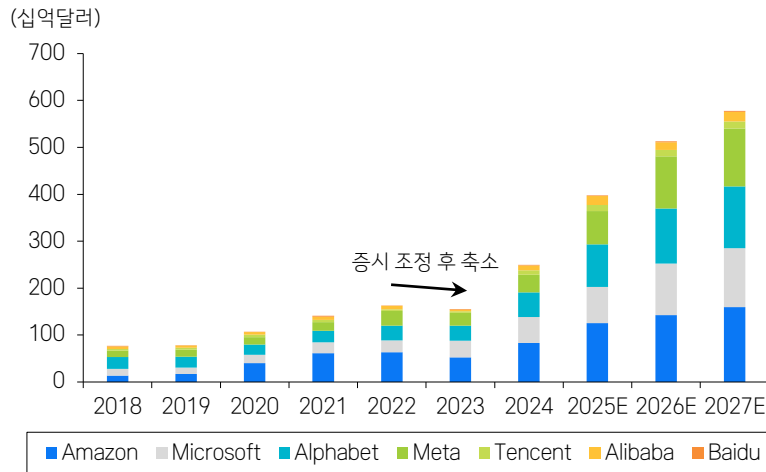
참고: 오른쪽 그래프의 합계가 왼쪽의 IT 기업 (청록색)
자료: EPFR, LSEG Workspace, 삼성증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전망치 조정 방향 관심

▶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Capex 전망치의 조정 방향성도 관심 대상이나, 절대 증가율에도 관심

- 주요 기업들의 2026년 Capex 전망치는 2025년에 비해 약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전망치가 실제치가 될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졌음
- 그럼에도 2027년도 전망치가 낮다는 점이 2026년 업사이드
- 인건비를 효율화하고, Capex를 확대하는 과정이 지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주요 하이퍼 스케일러 Capex 전망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6년 1월 미국 기업의 인력 재편 발표

	보도 일자	규모	사유
Meta	1.20일	약 1,500명	• Reality Labs(메타버스 사업) 부문 축소 • AI 분야로의 투자 자원 재배치
Autodesk	1.23일	1,300명	• AI, 클라우드 투자 확대 • 영업, 고객 지원 부문 경영 효율성 제고
Nike	1.26일	775명	• 테네시, 미시시피 대형 물류 창고 대상 • 물류센터 자동화 도입 가속화 • 오프라인 운영 효율화
Pinterest	1.27일	7~800명	• 사무직 축소를 통한 AI 투자 확대
UPS	1.27일	'26년 3만 명	• 아마존 패키지 배송 둔화로 비용 절감 • 물류센터 자동화 도입에 따른 인력 대체
Amazon	1.28일	1.6만 명	• AI 확산과 기업 조직 문화 변혁 • 관리층 축소와 전사적 비용 절감 • 팬데믹 기간 과잉 채용분 조정

자료: 언론보도,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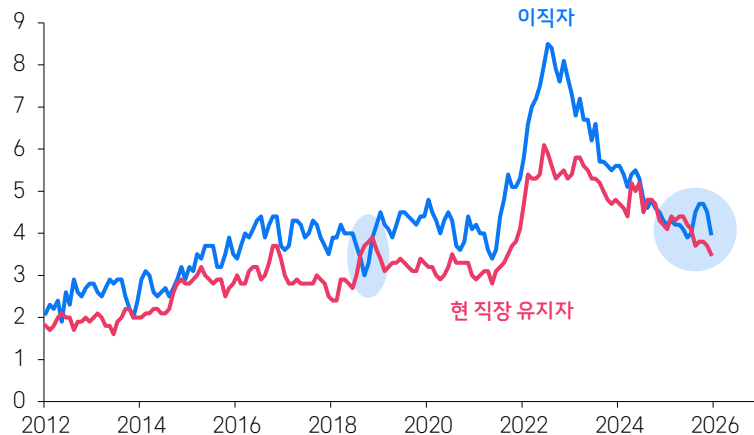
AI 활용 확대가 미국 전체 고용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

▶ 고용이 증시 상승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

- 현 직장 유지자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이유를 AI 확산의 결과였다고 본다면, 최근 추세는 이와는 반대
- 실업 수당 계속 청구 건수의 지속적 증가는 한 번 실업자가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현상으로 봤으나 이러한 추세도 반대로 움직임

미국 임금 상승률 (이직자 vs 현직 유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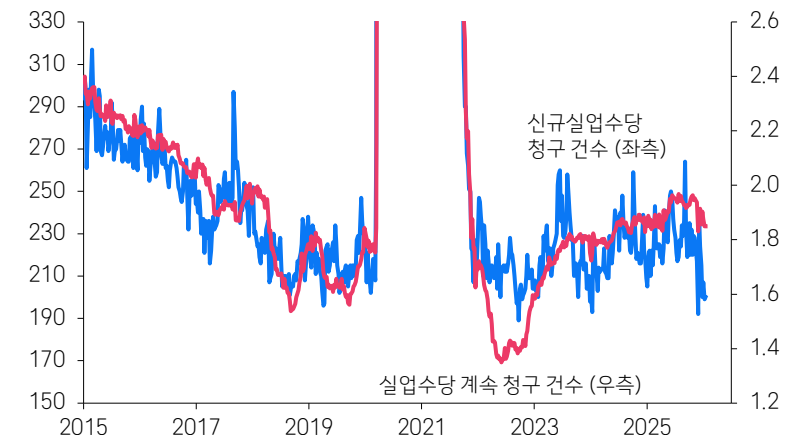
(%, 전년대비, 3개월 이동 평균)



참고: 2025년 12월 기준
자료: AtlantaFed, 삼성증권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천명)



참고: 2026년 1월 16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정부의 연준 개입 확대는 변동성 확대 요인 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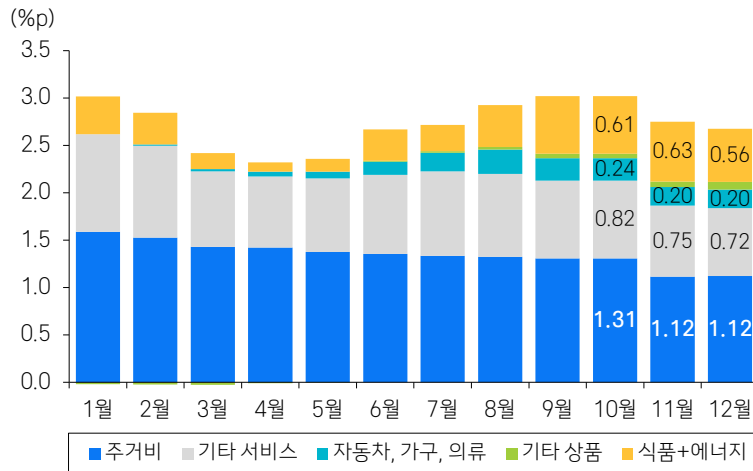
▶ 미국 소비자 물가에 왜곡이 있다고 해도 증시 상승세를 막을 수준은 아닐 것

- 왜곡이 없었다고 해도 물가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

▶ 그러나,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이 발생한다면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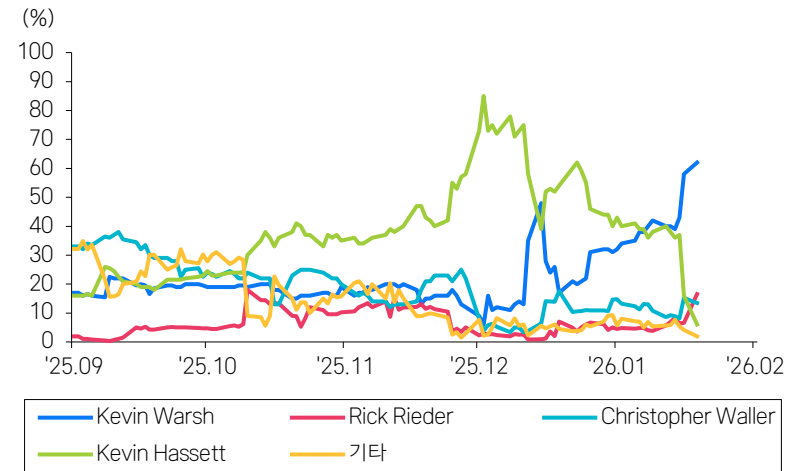
- 단기적으로는 후임 연준 인사보다 현 연준 의장과와의 관계가 중요할 것

미국 소비자 물가 구성 (전년 대비)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의 차기 연준의장 지명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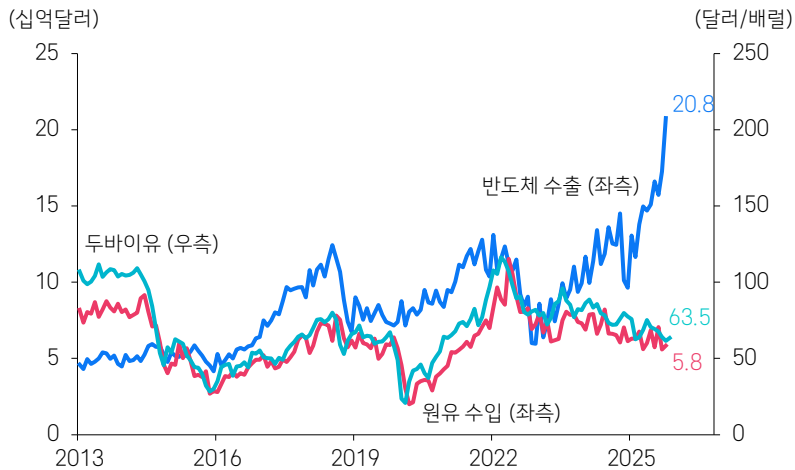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삼성증권

반도체가 견인하는 양호한 한국 무역 수지

▶ 반도체 가격은 높고, 원유 가격은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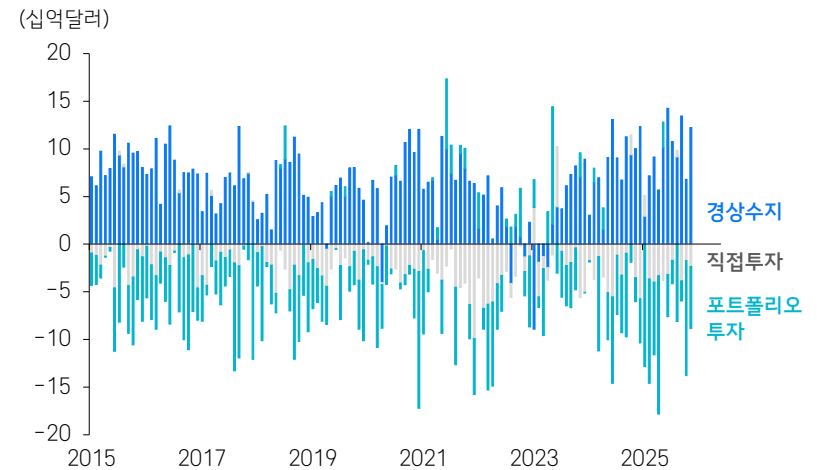
- 2026년 반도체 수출과 원유 수입 간의 격차 더 확대될 가능성 높을 것

반도체 수출 vs 원유 수입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국제 수지 주요 항목



참고: 2025년 11월 말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AI 외에도 신흥시장 업종 모멘텀 추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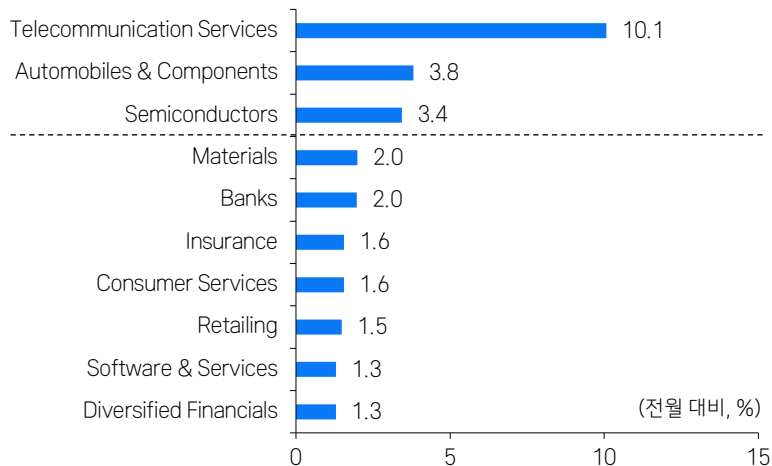
▶ 미국 증시 이익 모멘텀도 양호하지만 중국 이익 모멘텀도 강화되기 시작

- 전월 대비 3% 이상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은 중국이 더 다양하게 분포

▶ 한국 증시에서도 단기적으로 AI 일변도에서 다양한 업종으로의 주가 모멘텀 확산이 나타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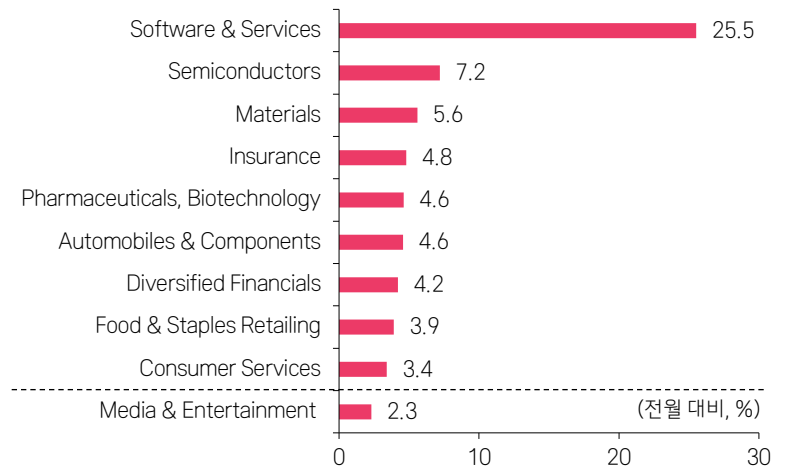
- 소재, 바이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종 등 관심 가질 필요 있을 것

업종별 12개월 예상 EPS 상향조정 비율 (미국)



참고: 1월 23일 GIGS 분류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업종별 12개월 예상 EPS 상향조정 비율 (중국)



참고: 1월 23일 GIGS 분류 기준
자료: LSEG Workspace, 삼성증권

주가 상승 종목군이 넓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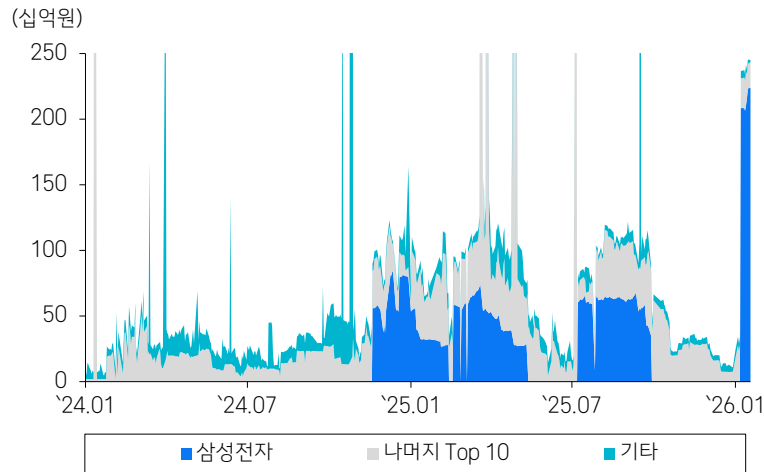
▶ 계절적으로 2월은 실적 이상으로 수급이 중요해질 수 있을 것

- 1) 실적 시즌 마무리되고, 2) 코스닥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3) 원자재 가격 상승, 4) 중국 이익 모멘텀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 있기 때문

▶ 펀더멘털 양호하나 주가 부진했던 기업들 편입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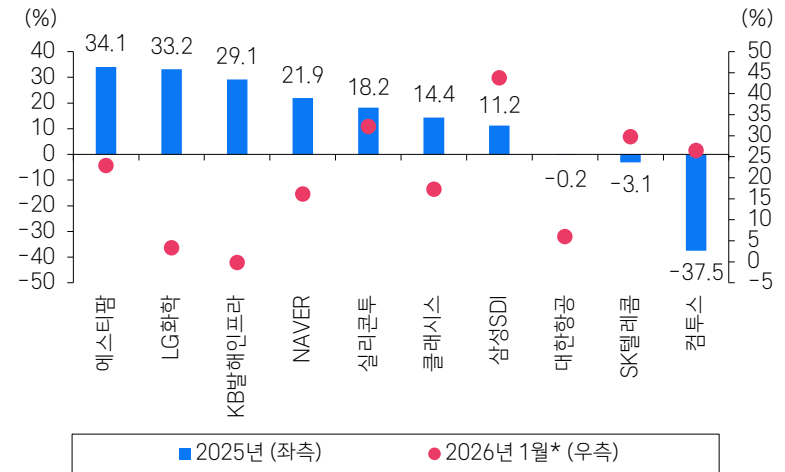
- 2월은 2025년 연간 주가에 대한 복기가 필요할 수 있는 시기

자사주 매입액 추정



참고: KOSPI 200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펀더멘털 양호하나 2025년 주가 수익률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들



참고: 당사업종별 Top pick 대상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KOSDAQ에 관한 관심 지속될 가능성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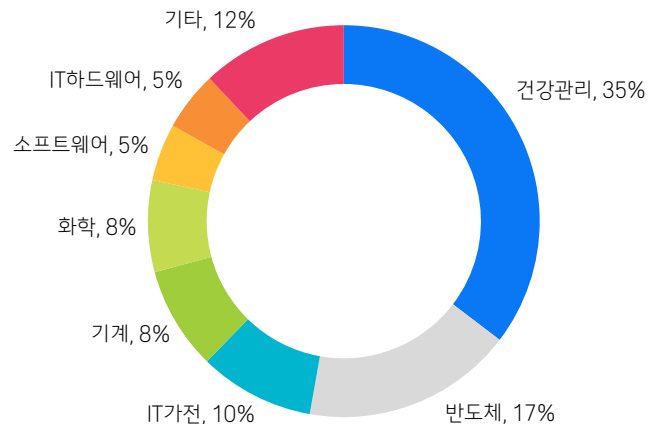
▶ KOSDAQ에 대한 관심 확대 지속될 가능성

-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보다 정책에 기반한 모멘텀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 국민성장펀드에서 투자하는 업종에 부합하는 종목에 대해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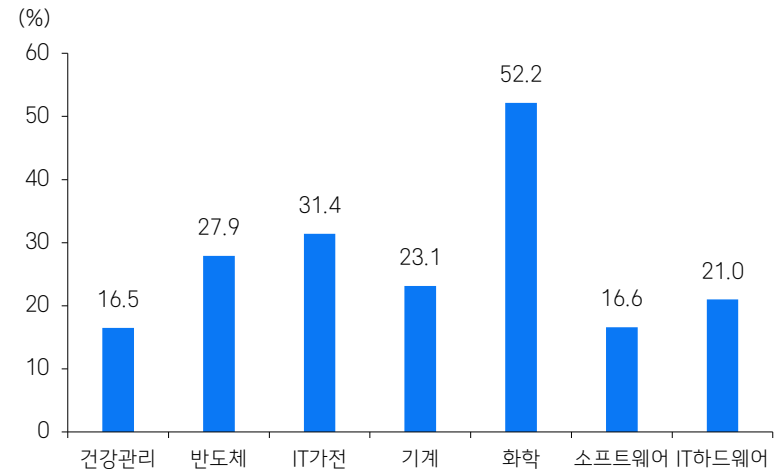
- 국민성장 펀드는 향후 5년 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
- 정부는 10개 첨단산업으로 1) 인공지능, 2) 반도체, 3) 바이오, 4) 백신, 5) 방산, 6) 로봇, 7) 수소, 8) 이차전지, 9) 디스플레이, 10) 미래차 밸류체인 전반을 제시한 바 있음

KOSDAQ 지수 구성 비중



참고: KOSDAQ 150 대상 WI26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KOSDAQ 업종별 시가총액 증가율



참고: KOSDAQ 150 대상 WI26 기준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 동안)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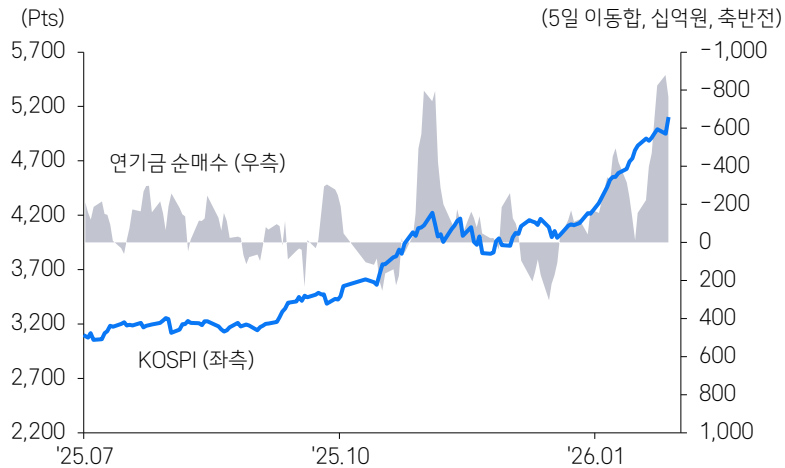
연기금 수급 점검

▶ 연기금은 1월에는 순매도 주체였음

- KOSPI는 작년 12월 중순 이후 연기금 순매도를 거스르며 상승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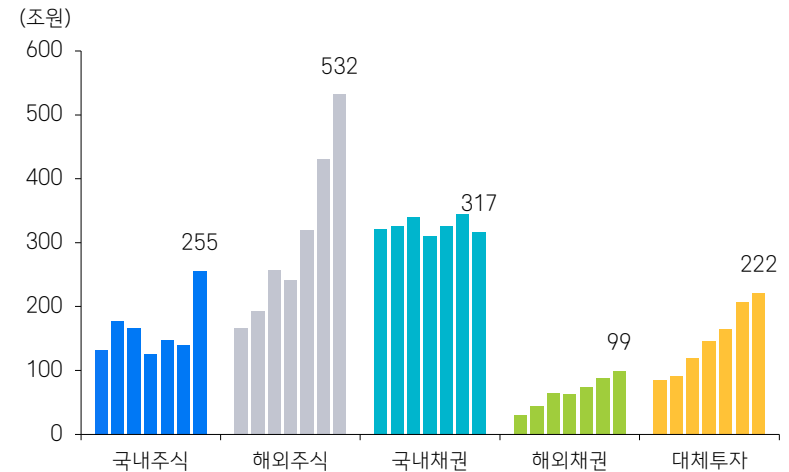
▶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 관련 정책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을 것

연기금 순매수 vs KOSPI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국민연금 자산군별 운용규모 (2019~2025)



참고: 2025년은 10월 말 기준

자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삼성증권

PART
02

업종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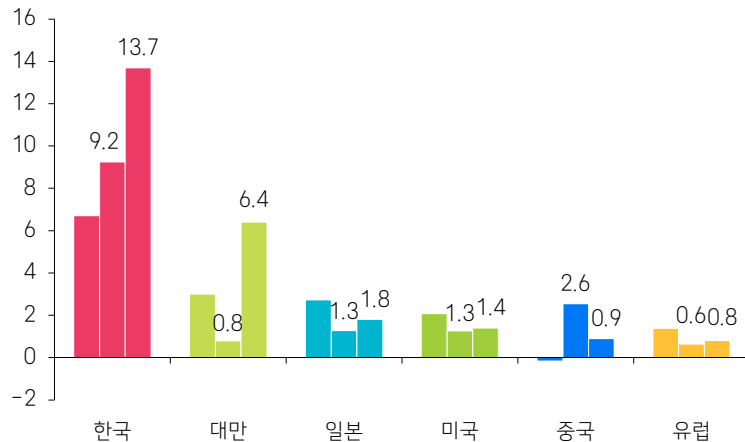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 대비 양호한 한국의 이익 모멘텀

▶ 한국 증시 강한 이익 모멘텀 유지

- 1월에도 한국 증시의 글로벌 증시 대비 이익 모멘텀 강세 지속
- 글로벌(미국) 증시에서 IT소프트웨어의 이익 모멘텀 재개된다면 2월에도 한국 증시 이익 모멘텀 양호할 가능성 높음
- IT를 제외하면, 대만 소재(화학), 기타 대부분 지역 금융 업종 이익 모멘텀 강하게 나타나 한국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있다고 생각

주요국 증시 전월 대비 12개월 EPS (11, 12, 1월)

(전월 대비, %)



12월 업종별 증시 순이익 상향 조정 기여도

(%p)



참고: 1월 19일 기준, 한국 KOSPI 200, 미국 S&P 500, 유럽 Eurostoxx, 일본 Nikkei 225,
대만 가권 지수, 홍콩恒生 지수 흑자 기업 대상
자료: LSEG, Quantwise, 삼성증권

참고: 오른쪽 차트의 합계가 왼쪽 차트의 12월 수치를 설명. 차이는 기타 업종
자료: LSEG, Quantwis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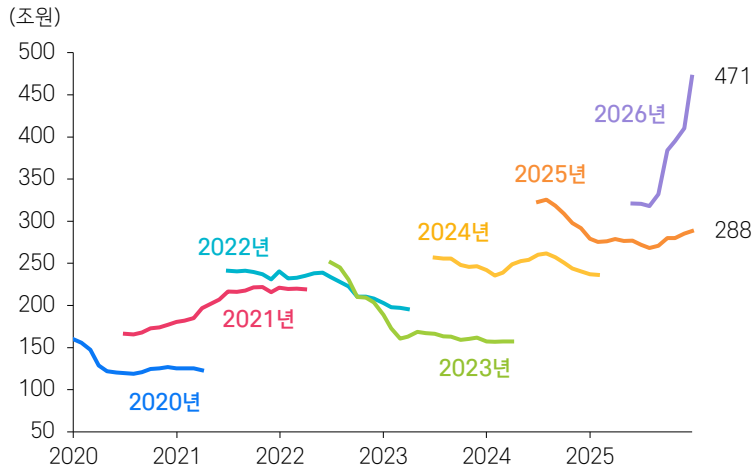
반도체가 견인하는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 2026년 이익 전망치 급상승

- KOSPI 200 기업의 2026년 영업이익은 471조원으로 2025년 대비 30.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이익 비중이 큰 정보기술 업종이 전체 상향 조정을 주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KOSPI 200)



업종별 2026년 순이익 추정치

(조원) 추정 시점	2026년 순이익 추정치		
	12월 26일	1월 27일	변화 (%)
정보기술	151.4	200.8	32.7
에너지	3.1	3.2	3.2
중공업	13.8	14.2	2.9
유틸리티	11.7	12.0	2.9
헬스케어	4.0	4.1	1.9
건설	5.2	5.3	1.9
금융	41.7	42.1	0.9
경기소비재	32.0	32.1	0.4
화학	5.6	5.5	(0.4)
커뮤니케이션서비스	8.7	8.6	(1.5)
산업재	11.3	10.9	(3.3)
철강/소재	3.6	3.5	(3.5)
생활소비재	6.8	6.5	(4.1)
합계	298.8	348.9	16.7

참고: KOSPI200 기준이나, 정유 4사, 유틸리티 2사를 각각 화학, 생활소비재에서 분리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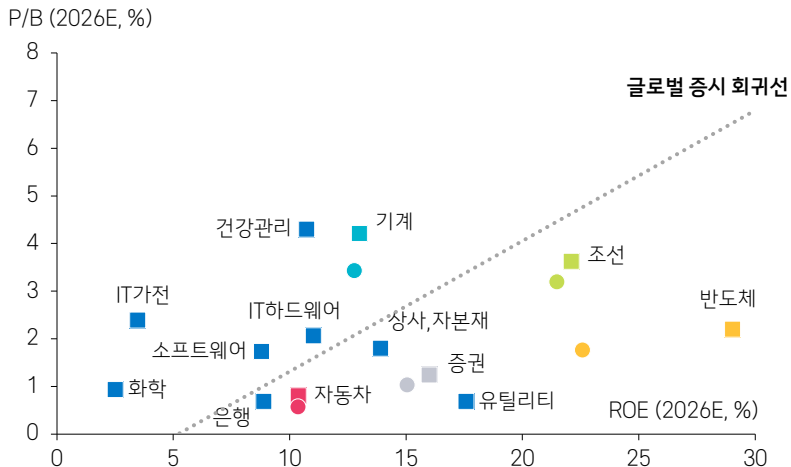
참고: 1월 27일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주가가 올라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업종들 존재

▶ 주요 업종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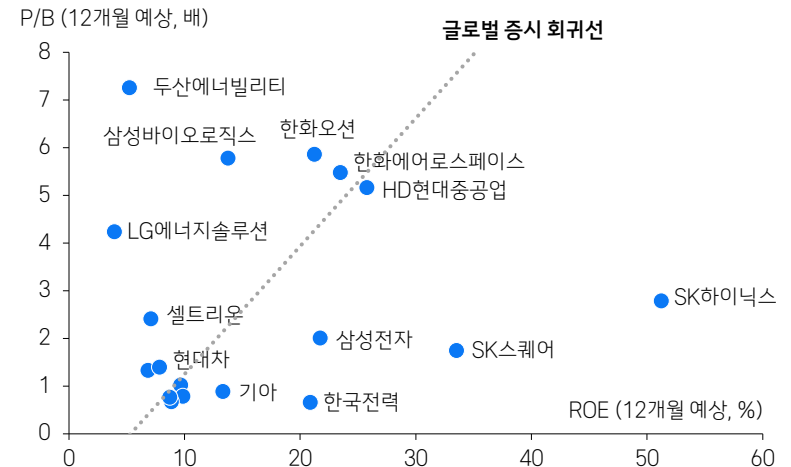
- 반도체 주가는 실적 전망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 시장은 반도체 업종의 지속 가능한 ROE를 13.5% 가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자동차 업종 내 종목별 밸류에이션 매력 격차 발생하기 시작. 그러나, 투자자들은 자동차보다 로봇 모멘텀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업종별 ROE vs P/B



참고: W126 기준 업종 중 시가총액 상위 업종. 네모가 1월 28일, 동그아미는 2025년 말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ROE vs P/B (시가총액 상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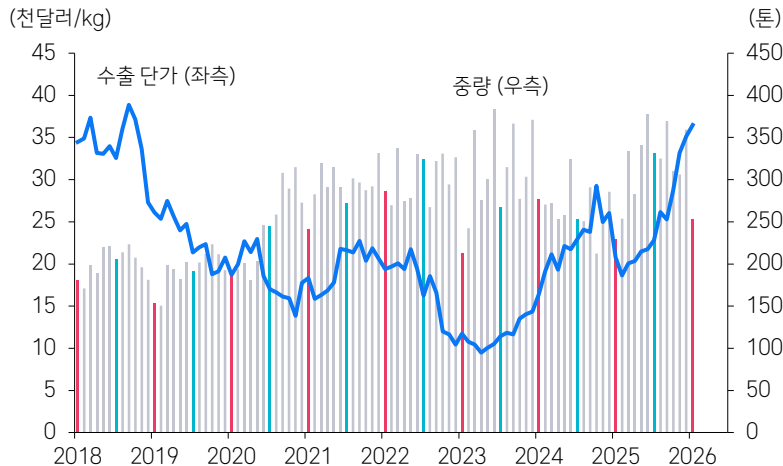
참고: W126 기준 업종 중 시가총액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반도체) 범용 디램 가격 상승 본격 수혜

▶ 1월에도 반도체 수출 단가 강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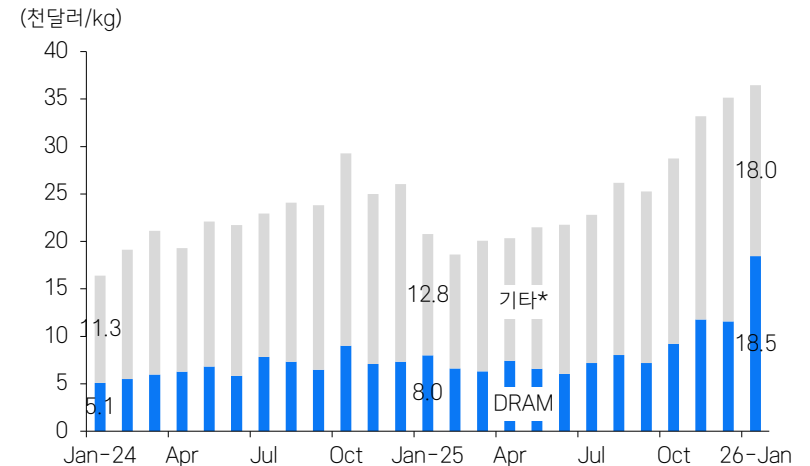
- 1) 디램 스팟 가격의 상승세, 2) 최근 HBM의 수출이 하순에 집중되었던 경향성을 감안하면 1월 반도체 수출도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



참고: 2026년 1월 물량은 첫 20일 물량 x (3/2), 빨간색 막대는 1월
자료: KITA, 삼성증권

반도체 수출 단가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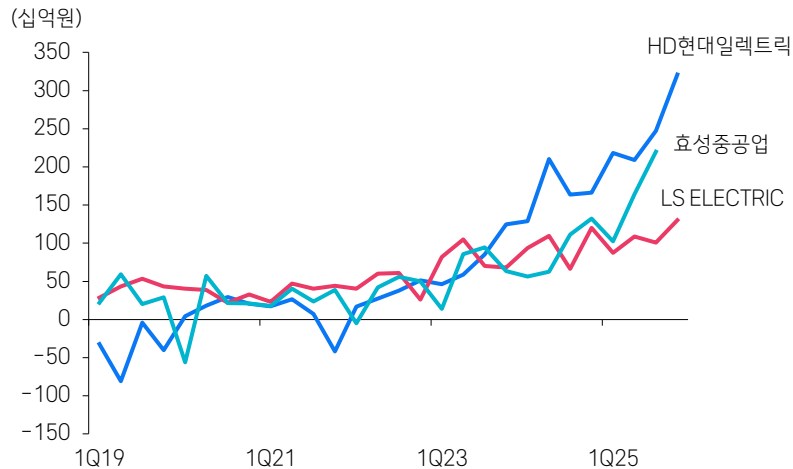
참고: DRAM과 기타의 합계는 왼쪽 그래프의 파란색 선(수출 단가)을 의미, 10월은 20일까지 누계 기준
* NAND 및 HBM도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
자료: 관세청, 삼성증권

(전력기기) 글로벌 유동성 및 IT 모멘텀과 같은 방향

▶ 전력기기 기업 이익 모멘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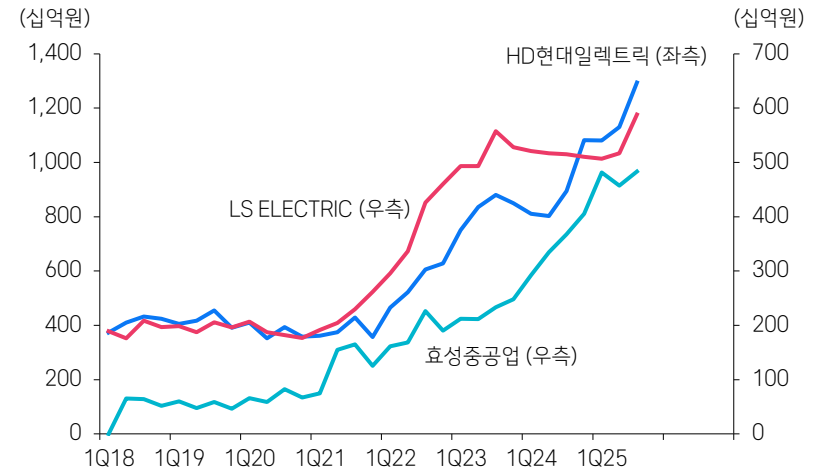
- 전력기기 기업 양호한 4Q25 실적 발표. LS ELECTRIC도 일회성 제외 시 상당한 서프라이즈
- 3Q25 재고자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효성중공업의 4Q25 실적도 부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력기기 기업 영업이익 규모



참고: 3Q25말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전력기기 기업 재고자산



참고: 4Q25말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자동차) 로봇 테마 부각 때마다 모멘텀 받을 가능성 높아짐

▶ CES의 화두는 Physical AI. 자율주행, 로봇, 물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적용 사례 증가

- 실제 데이터 축적과 대량 생산 능력이 중요해짐
- 그러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 분야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로봇이 화두가 될 때마다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

CES 2026: Physical AI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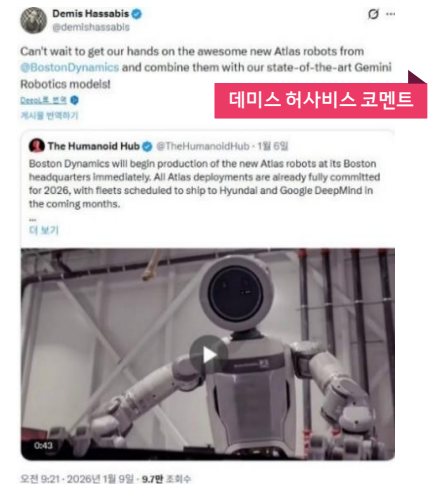
	자율주행	로봇	물류
기술 성숙 수준	• 제한된 지역 내 실사용 단계: 기술 검증, 시연 → 운영, 확장 전환	• 개념 정의의 단계를 넘어 연도, 수량이 명시된 양산 로드맵이 제시	• 대규모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
현황	• Telsa, Waymo, Zoox, Motional 전시 및 실차 운행: Robotaxi 美 일부 도시에서 일상적 이동수단	• 현대차 그룹: 양산형 휴머노이드 Atlas 공개.물량 배정(26년) → 고객사 확대(27년), 3만 대 생산(28년) 청사진	• 아마존: 로봇 HW, AI 파운데이션, 클라우드 수직 계열화. 300여개 거점에서 100만대 이상 로봇 실 운영
과제, 함의	• 서비스 모델 차별화가 과제: 주행 안정성에서 탑승경험(UX, UI, 엔터테인먼트)이 경쟁 요소	• 병목: 에너지 저장, 열관리, 원가 구조 • 다양한 변칙적 상황을 처리하는 홈, 서비스 로봇 상용화는 초기 단계	• Physical AI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표준 운영 모델 만드는 산업: 향후 제조 로봇 확산 시 운영 방식 차용될 가능성

자료: 언론보도 종합, 삼성증권

디지털 데이터와 물리 세계 데이터 비교

	디지털 데이터셋	물리 세계 데이터셋
복제 비용	거의 0	매우 높음
실패 비용	없음	사고, 파손
시간성	독립 샘플 가능	시계열 의존
법칙	통계적	물리법칙 제약
분포	정적	환경따라 변동

자료: X(트위터), 삼성증권



(에너지) AI 밸류체인 내 병목으로서 전력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

▶ 제조업과 AI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미국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 뚜렷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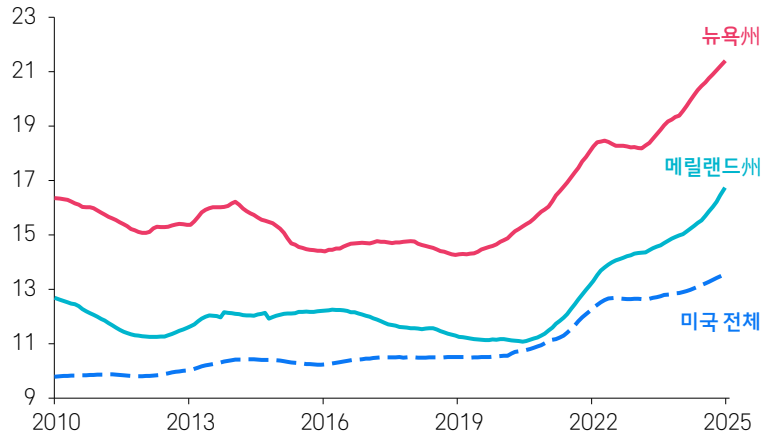
- 이로 인해 전기가격 지속 상승. EPC 관련 기업 관심 지속할 필요

▶ 삼성E&A는 2030년 세전이익 중 LNG를 포함한 New Energy 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뉴에너지 사업은 1) LNG(FLNG), 2) 수소, 암모니아 CCS 등 청정에너지, 3) 수처리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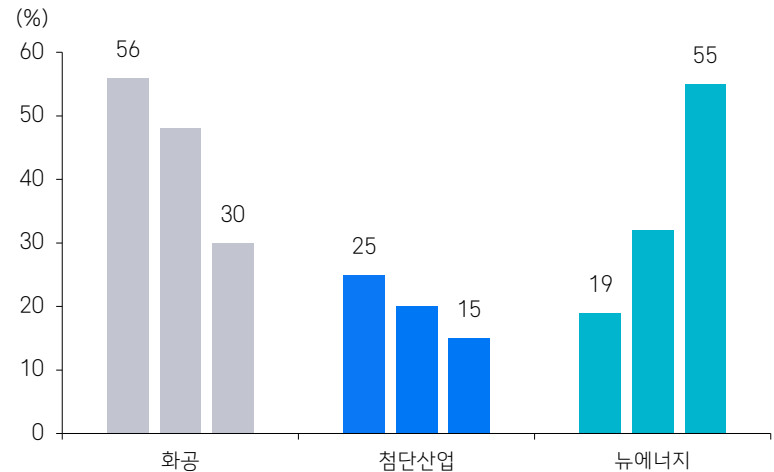
미국 전기 가격

(Cents/kWh, 12개월 이동평균)



참고: Total(주거용+상업용+산업용+운송용) 기준
자료: EIA, 삼성증권

삼성E&A 세전 순이익 구성 비중 전망 (2025, 2028E, 2030E)



자료: 삼성E&A, 삼성증권

(금융) 글로벌 유동성 증가 수혜는 증권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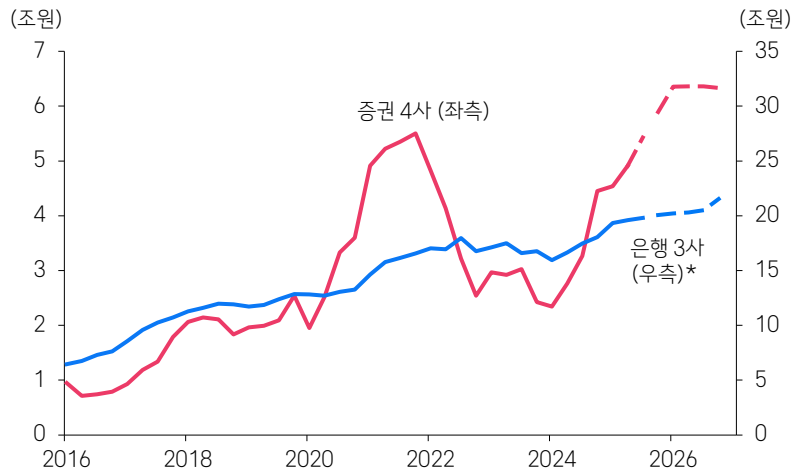
▶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AI의 성장은 상관관계가 높음

- 글로벌 금융 업종은 20% 안팎의 이익 성장 기대. 한국 금융 업종 중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 업종

▶ 증권 업종의 이익 안정성도 과거 대비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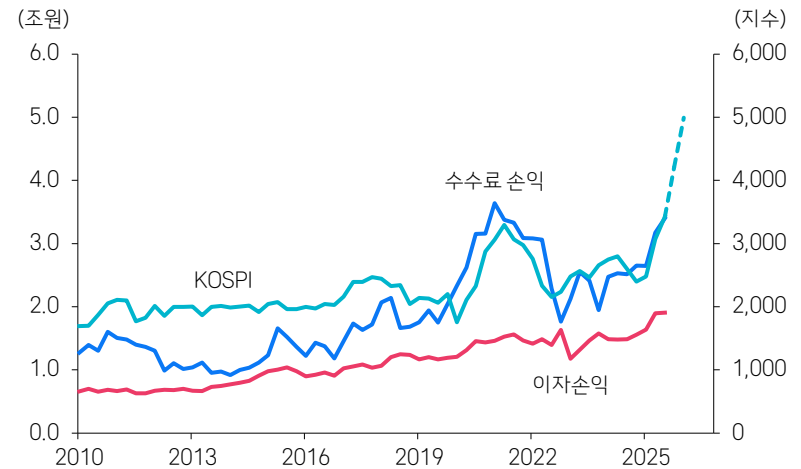
- 수수료 손익도 업사이드가 있겠으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이자 손익의 비중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
- 2025년 2분기, 3분기 이자손익은 전년 대비 28.4% 성장

금융 업종 세전이익 추이 (직전 4개 분기 이동 합 기준)



참고: 은행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준
증권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한국 증권사 부문별 손익 (분기)



참고: 점선은 이미 확정된 주가
자료: 금감원, 삼성증권

(금융) 유동성 확대에 의한 자산 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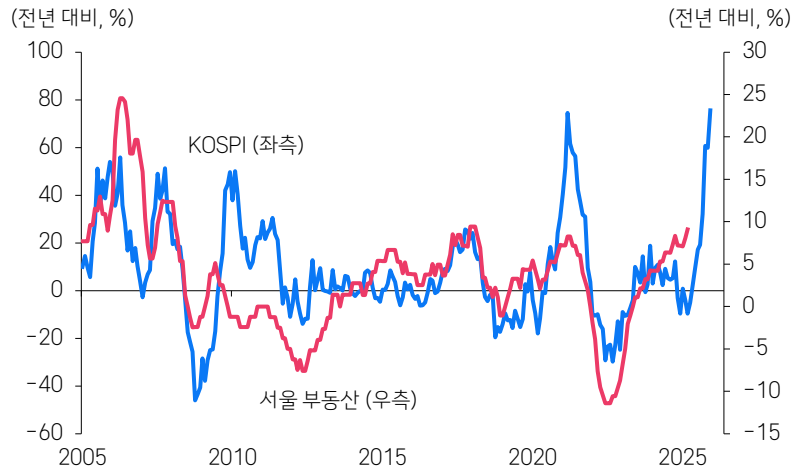
▶ 금융 업종 전반적으로 긍정적

- 업종 내 선호는 정책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 증권 업종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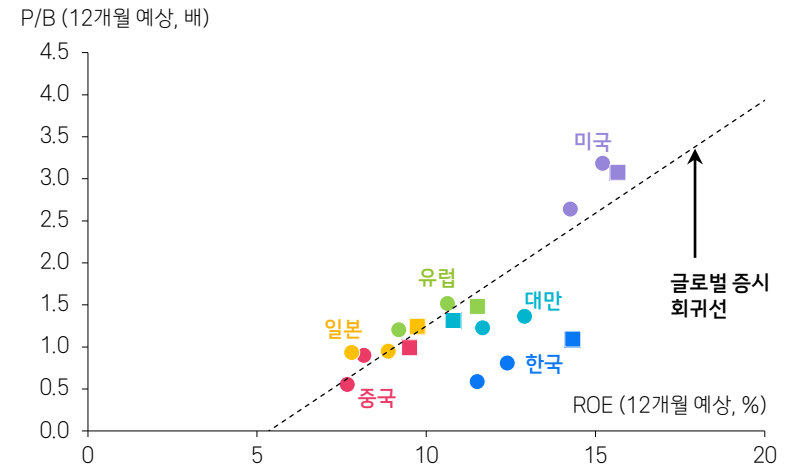
-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평가

서울 부동산 가격 vs KOSPI



참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KOSPI에 9개월 후행하는 것으로 표현
자료: LSEG, 삼성증권

ROE vs P/B (MSCI 증권 업종)



참고: 네모가 1월 27일 기준, 동그라미는 2024, 2025년 1월 27일 기준
자료: LSEG, 삼성증권

(소재) 금속 가격 상승세와 업계 구조조정 수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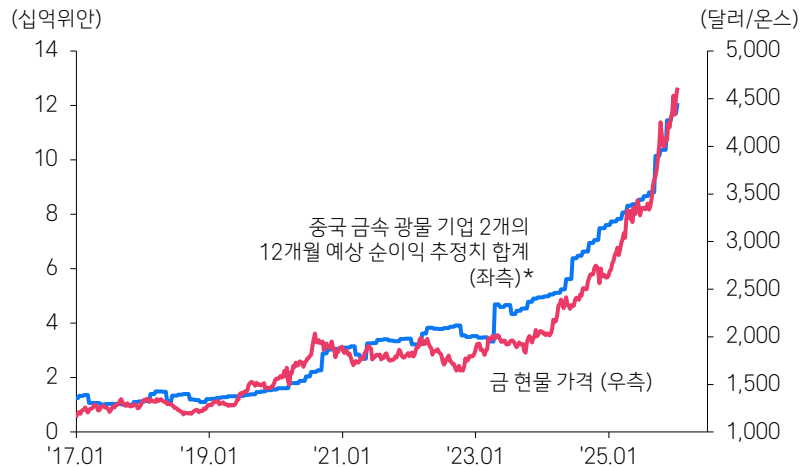
▶ 최근 금, 은 등 귀금속 등의 강한 가격 상승세

- 중국의 관련 기업 이익 전망치도 강력한 상승세. 제품 가격 상승은 고정비 증가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

▶ 대만 화학 기업의 이익 모멘텀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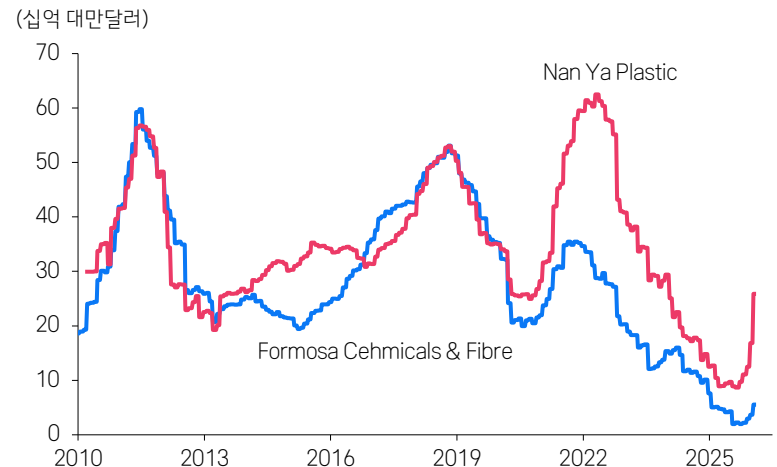
- Nan Ya Plastic은 PCB용 동박, 유리섬유 수요 확대
- Formosa Chemicals & Fibre는 중국발 공급 개혁 등으로 업황이 최악은 지난 것으로 추정

금 가격과 중국 금속 광물 기업 순이익 전망치*



참고: * Zhongjin Gold, Shanjin International Gold 12개월 예상 기준 합계
자료: Bloomberg, LSEG, 삼성증권

대만 화학 기업 순이익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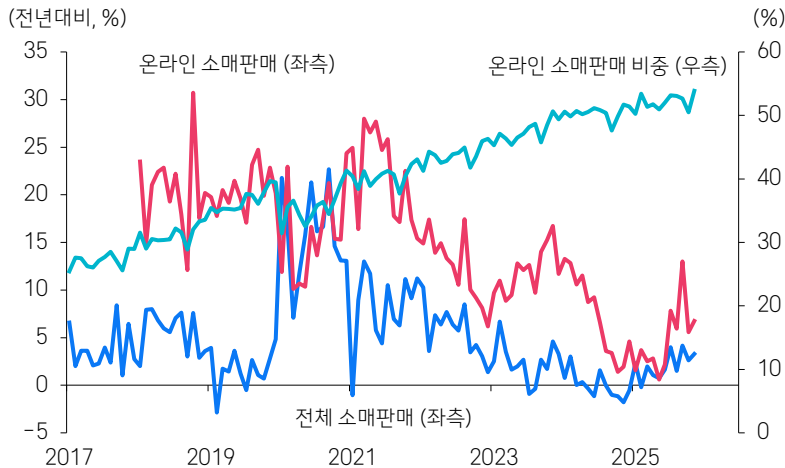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예상 기준
자료: LSEG, 삼성증권

(유통, 인터넷) 한국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의 판도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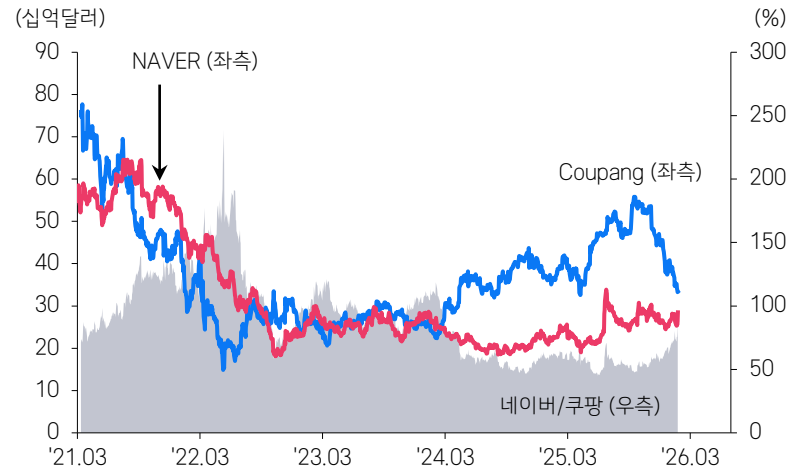
- ▶ 한국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은 여전히 성장하는 시장
- ▶ NAVER의 시가총액이 Coupang보다 항상 작았던 것은 아님

소매판매 성장률과 온라인 소매판매 비중



자료: 국가데이터처, 삼성증권

시가총액 (네이버 vs 쿠팡)



자료: LSEG, 삼성증권

(방산) 미국 정부는 국방 예산 비중을 줄이고 싶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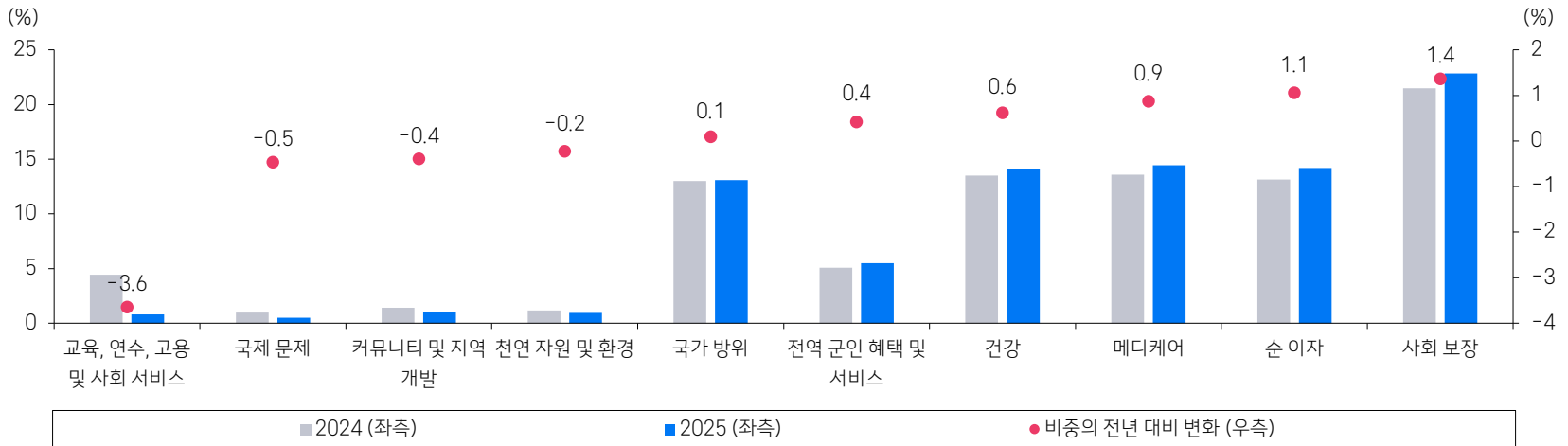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 비중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 2025년 재정 지출의 특징은 비중이 작은 지출(사회 서비스, 국제 문제 등)을 많이 줄였다는 것. 해당 부문은 더 줄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의미 있게 비중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은 국방비

▶미국이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켜주던 안보가 사라지며 전세계의 넓은 전선에서 지정학 위험이 증가

- 방산 업종은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 일반 방어주보다 높은 주가 상승이 가능. 장기 포트폴리오로서 일정 비중 편입 필요

미국 재정 지출 부문별 비중과 변화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Premium Picks – 한국

	종목명	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조원)	Valuation (배, %)				
			현재가	목표가		P/E	P/B	EPS 증가율	ROE	배당수익률
IT	삼성전자	005930 KS	162,400	200,000	961.3	10.3	2.0	162.8	19.7	1.0
	SK하이닉스	000660 KS	841,000	950,000	612.2	7.3	2.8	108.3	39.0	0.3
경기소비재	현대차	005380 KS	492,500	850,000	100.8	11.2	1.0	7.9	9.2	2.5
금융	한국금융지주	071050 KS	202,500	230,000	11.3	6.5	0.9	-5.8	14.1	3.8
산업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 KS	1,288,000	1,300,000	66.4	27.2	5.7	45.4	21.1	0.4
	효성중공업	298040 KS	2,518,000	2,660,000	23.5	32.6	7.8	48.1	23.8	0.4
	삼성E&A	028050 KS	32,150	39,000	6.3	9.0	1.2	12.9	13.2	2.4
소재	풍산	103140 KS	124,600	180,000	3.5	14.0	1.4	21.1	9.7	2.2
	SK케미칼	285130 KS	68,900	96,000	1.2	11.4	0.6	35.1	4.9	2.2
커뮤니케이션	NAVER	035420 KS	277,500	330,000	43.5	19.2	1.4	5.6	7.2	0.5

참고: '26년 1월 28일 종가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2026년 2월 섹터/업종 View ①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반도체	이종욱	① 하이퍼스케일러의 AI Capex 상향 조정으로 AI 사이클 peak-out 우려 완화되며 HBM 수요 강세는 2026년까지 지속 전망. 메모리 제조사들의 보수적 Capa 증설 기조와 양호한 고객사 재고 수준 감안 시 HBM의 타이트한 공급 환경 이어질 것. ② 주요 메모리업체들의 HBM 중심 Capa 집중으로 범용 DRAM 공급 여력 축소, 범용 DRAM 가격 상승세는 1H26까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 ③ AI 수요가 스토리지까지 확대되며 eSSD 중심 NAND 가격 강세 1H26까지 지속 예상되며 메모리 제조사들의 이익 추가 업사이드 기대. 종합적으로 모든 메모리 업체들이 동일하게 P 효과를 누리는 가운데, 메모리 3사 중 유일하게 단기간 내 범용 메모리 증설이 가능한 삼성전자가 Q 측면에서 수혜, 2026년 HBM/범용 DRAM 시장에서의 마켓쉐어 확대 기대.	삼성전자
	반도체 소부장	문준호	메모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추가 증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장비 업체들을 선호.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익 가시성 차원에서는 가장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 삼성전자 P4와 SK하이닉스 M15X 신규 증설이 겹치며 가파른 외형 성장 기대. 2027년에는 삼성전자 P5,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증설이 계획되어 있어, 중장기 이익 전망도 긍정적.	원익IPS
	전기전자/IT 부품	이종욱	세트 수요 부진 장기화, 전년 대비 점진적 회복세 확인되나 출하 회복 강도는 제한적. AI와 Non-AI 기업 간 실적 격차 확대 지속되며 AI 서버 및 전장 중심의 하이엔드 수요 강세. ① MLCC 2026년 가동률 90~100% 근접 전망, 공급 타이트 지속. ② Nvidia, AMD, Broadcom 등 AI GPU 수요 증가에 따른 고다층 FC-BGA 중심의 ASP 상승세 전망. 삼성전기는 MLCC와 FC-BGA 가동률 상승의 수혜를 동시에 받는 기업으로, 하반기 FC-BGA 가동 예상·증설 검토 중. 또한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전반 제한하며, 일본 MLCC 업체 공급망 불안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대안으로 부상하며 수혜 가능성.	삼성전기
	제약/바이오	서근희	제약/바이오에는 트럼프 2.0 행정부의 미국 의료 정책(관세, 약가 등) 불확실성 해소되는 국면. 글로벌 제약사, 블록버스터 약품 등 주요 품목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M&A 및 딜 가속화 추세. 2026년에도 항암제, 비만 치료제, AI 신약(엔비디아(NVDA US)-일라이 릴리(LLY US)) 등 실질적인 글로벌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으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구체적인 계약 성과나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2분기 다수 학회에서 핵심 데이터 공개)인 기업 주목 필요.	에스티팜, 한미약품
	의료기기	정동희	지속 가능한 성장 창출 중인 의료 미용 업종 최선호 유지. 업종 내 대형 시장 진출 사례 증가하며 성장에 대한 기대치 높아진 상황으로, 가격 경쟁력/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와 안정적인 비용 관리가 핵심. 의료 미용은 선진국 시장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도 수출처 다변화로 성장. 최근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 성장 기대 확대됨에 따라 리레이팅 중으로 이익 안정성 확보는 과제. 현재의 의료관광 경험을 가진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트렌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중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품목 다변화(신제품 출시 또는 M&A) 및 신규 시장 진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에 주목 필요.	파마리서치, 클래스스

자료: 삼성증권

2026년 2월 섹터/업종 View ②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2차전지	장정훈	2월은 1월 미국 전기차 판매를 확인하면서 부정적 투자심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2월중 1조원 규모의 2차 ESS 중앙계약 입찰 기업에 대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3월 국내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둔 Awards 이벤트 및 홍보성 기사가 쏟아지면서 긍정적 투자 심리를 더 자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삼성SDI
	자동차	임은영	1월 초 CES 2026 행사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AI, 로보틱스 전환 전략을 발표.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로드맵 가시화로 완성차와 국내 밸류체인 동반 관심 고조. Peer Group이 글로벌 Legacy 업체가 아닌 Physical AI 업체로 재정의 되면서, Valuation Re-rating 진행 중. Physical AI 시대의 병목은 현실 세계의 행동 데이터.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물리 세계에서의 사업을 위해 디바이스의 대량 배포가 가능하고, 행동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 현대차/기아의 생산공장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인 동시에, 1) 로봇의 액션 데이터를 제공하며 2) 로봇 모델의 훈련을 검증하고, 3)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역할 정립.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계/방산	한영수	국내 방산업체들의 이익률은 수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 러-우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럽 재무장 정책, 미국 방위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방위비 증대는 지속될 것. 전력기기 산업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것. 특히 북미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데이터센터 건설 확대로 구조적인 전력부족을 겪는 가운데, 노후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수요까지 발생.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 역시 오히려 한국 업체들에게는 평가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상태. 이중 HD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할증 판매를 통해 경쟁사들 대비 월등한 수익성을 기록 중이며, 동사는 추가적인 평가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 중장기적으로도 경쟁사들에 앞서 단행한 증설 덕분에 내년 외형 성장도 기대. 최근 주가 하락을 견인했던 약한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의 경우 기존에 동사가 보수적인 수치로 소통한 것을 고려하면, 실적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우려라 판단.	HD현대 일렉트릭
	조선	한영수	한국 조선소들은 안정적인 수주 실적과 함께 빠른 저가 물량 소진 속도에 '26년부터는 저가 물량 완전 해소 예상. 이와 함께 반복건조를 통한 생산성 개선으로 내년 이익 전망치 상향. 추가로 내년부터 LNG선 발주 시장 재개도 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참고로 올해 LNG개발 프로젝트들의 재개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추가로 필요한 LNG선은 600척 이상이며, 이는 현재 수주 잔고의 2배 이상. 이러한 업황 속 견조한 수익성과 해양방산 모멘텀을 보유한 HD현대중공업 추천.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통한 방산 부문에서의 시너지 기대 가능. 밸류에이션 역시 경쟁사보다는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	HD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박세웅	지주회사는 1) 자회사 및 별도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성 달성과 2) 이를 토대로 한 효율적인 자본 활용 정책이 2026년 주가의 관건이 될 것이라 판단. 2026년 자회사 CJ올리브영의 글로벌 시장 이익 체력 확대와 새로운 중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기대되는 CJ에 관심 권고.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자산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법 개정 기대감에도 초점. '27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액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주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일수록 해당 이벤트가 주가 리레이팅의 기회가 될 가능성.	CJ

자료: 삼성증권

2026년 2월 섹터/업종 View ③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화학	조현렬	올해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일부 긍정적 영향은 받았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된 가운데, 범용 제품 위주로 증설은 내년에 보다 증가할 전망. 따라서 다운스트림 업체 위주의 견조한 수익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 과거 호황기(2018년 및 2021년) 재현을 위해선 글로벌 에틸렌 설비 폐쇄는 2,198~3,337만 톤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현재 연간 250만 톤 내외 진행 중). 화학 업종 Top-picks는 LG화학, KCC 및 SK케미칼 추천. 주주 가치 제고 모멘텀을 보유한 업체를 상대적으로 선호.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가치를, KCC는 투자 자산 및 자사주 가치를, SK케미칼은 자회사 지분 가치 할인을 해소 기대.	LG화학, KCC, SK케미칼
	정유	조현렬	정유의 경우 전년 대비 순증설이 증가하겠지만, 선진 시장의 노후 설비 폐쇄 확대로 여전히 제한적인 증설 기조가 유지될 것. 또한 EU의 러시아 제재 강화(1월 시행)로 정유 제품 수요에 있어 아시아 지역의 반사 수혜가 기대되고, 중장기 관점에서 미국 전기차 정책 변경으로 운송용 연료 수요 감소 시점이 예상보다 2년 연기(2027년→2029년)될 것으로 판단. 정유 업종 Top-pick은 S-Oil. 정유에 이어 화학 부문까지 수익성 회복이 동반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	S-Oil
	음식료	이가영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내수의 한계를 뛰어넘은 K-푸드 중목을 중심으로 관심 제언. K-푸드 중에서도 K-매운볶음면은 유사 제품이 없던 미국/유럽/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 중. 아직 K-매운볶음면은 미개척 시장이 많은 상태로 카테고리 성장의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기에, 당분간 선점 효과를 누릴 시장 선두주자 삼양식품에 투자할 것을 권고. 최근 중국 매출 비중 성장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에, 매수 기회로 유요. 중국 매출은 OPM이 0% 수준인 내수 매출보다 수익성이 높고, 전사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가 증가할 것이기에, 중국 매출 비중 증가에도 올해 수익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	삼양식품
	화장품	이가영	2026년 오프라인 진출 본격화 덕에 K-뷰티는 미국 수출 반등, 유럽 수출 가속화, 중동 수출 본격화가 예상. 이 때 최대 수혜주는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에이피알)거나, 인기 브랜드들만을 선별하여 판매하는 수출전문 유통사(실리콘투)일 것. 실리콘투는 유럽에서는 납품 SKU 수가 증가하고(아직 미국의 1/4 수준), 미국에서는 대형 리테일러 납품이 크게 증가하며, 중동에서는 물류창고 가동이 시작되면서 '26년 영업이익 성장률 43% 예상. 최근 주가 상승에도 밸류에이션이 아직 매력적인 수준(12m fwd P/E 13x)으로, 업종 매수세 유입 시 업황 베타를 총목으로 가장 선호될 것으로 예상. 또한 에이피알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마켓 센싱 능력과, 이를 신제품으로 빠르게 구현하는 능력이 타 브랜드 대비 압도적으로 우수. 특정 제품의 인기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제품을 인기 상품으로 격상할 수 있기에 매출의 지속성이 예상되며, 영업이익 성장률('26E 59%) 대비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12m fwd P/E 23x).	실리콘투, 에이피알
	증권	정민기	1월 일평균거래대금 50조원 수준을 돌파(q-q +35% 수준)하는 등 '26년 들어서도 증시 강세가 더욱 뚜렷한 상황. 이에 더해 정부는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코스닥 3,000pt 타겟 언급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강도의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음. 유일한 리스크는 '25년도의 투자자산 평가이익 기저효과에 따른 올해 감익 가능성이 있으나, 이 또한 국내 증시 강세가 지속되면서 평가이익 확보 가시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 증권 섹터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주가 흐름 기대하며, 중목 선정 차원에서는 1) 자본 활용 비즈니스(투자, 이자) 관점에서 민감도가 높은 한국금융지주와, 2) 브로커리지 관점 (특히, 코스닥 시장 활성화 시 수혜 확대 기대) 민감도가 높은 키움증권을 추천.	한국금융 지주, 키움증권

자료: 삼성증권

2026년 2월 섹터/업종 View ④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대체투자 (리츠/ 인프라)	이경자	금리 하락을 반영하며 상장리츠의 평균금리는 2024년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 이에 따라 후행적 배당 회복으로 2026년 가장 큰 폭의 배당 성장 전망. 2026년 주요 리츠는 유상증자 계획이 없거나 철회, 해외자산을 담은 리츠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산 편입 시 잔여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추세. 2026년 민투법 개정안 등 정책 모멘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리츠보다 인프라펀드의 모멘텀이 우세할 전망. 민투법 개정안에 주요 안 중 하나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비율이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으로 해당 안 통과 시 인프라펀드의 유상증자 리스크 해소 가능. 올해 본격 시행될 국민성장펀드 역시 인프라펀드 업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KB발해인프라는 배당수익률 6.5%로 메인 자산인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선순위대출 전액 상환 후 빠른 잉여 현금흐름 축적 고려 시 운명만기인 2036년까지 높은 배당 가시성과 상승 여력. 보령 LNG터미널,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등 신규 투자 이뤄지며 성장성 확보.	KB발해 인프라
	건설	허재준	현재 건설사 주가를 가르는 키 포인트는 수주 파이프라인의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삼성E&A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최근 주가 상승은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 가능. 삼성E&A는 에너지 전환, 현대건설은 원전, 대우건설은 데이터센터와 원전이라는 산업으로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라 판단. 따라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에서의 역량이 부각되는 건설사에 주목할 필요. 특히, 삼성E&A는 최근 진행한 실적발표에서 New Energy 사업부를 신설한다 밝힘. New Energy 사업부는 LNG, 청정에너지(수소, CCUS, SAF, 블루암모니아 등), 수처리, 물류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 2026년은 관련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해라고 판단.	삼성 E&A
	미디어/ 엔터	최민하	엔터 업종은 최근 BTS, 블랙핑크가 26년 봄 완전체 컴백을 확정하였고, BTS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월드투어 일정을 발표하며 엔터주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개선. 또한 각 기획사별로 탭티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월드투어가 본격화 되면서 이들의 수익 기여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 대규모 공연은 MD 및 라이선싱 매출의 동반 성장으로도 이어지는 만큼 이익 레버리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 미디어 업종은 TV 방송 채널들의 일부 드라마 슬롯 재개, 해외 공동 제작 프로젝트 확대 등으로 제작사들의 공급 편수가 회복세에 진입. 이에 실적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뚜렷한 이익 턴어라운드 예상. 티빙 등 국내 OTT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전략적 협업 및 효율적인 콘텐츠 투자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하이브
	인터넷/ SW	오동환	'26년 인터넷 SW 섹터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기대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 금융위의 정부안은 한국은행과 의견 조율로 확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민주당은 2월 중 당론을 정리하여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 민주당의 공격적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원화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가시성 확보로 네이버, 카카오 등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할 전망. 쿠팡에 대한 정부의 조사 및 규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네이버쇼핑 등 경쟁사에 대한 반사 수혜도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전망.	NAVER, 카카오
	은행	김재우	2월 초 은행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 4Q 실적은 일회성 비용 요인으로 다소 저조할 전망이지만, 26년 실적 개선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보다 클 것으로 판단. 이와 더불어 25년 결산 배당 및 26년 주주환원 추가 강화 여부가 은행주의 Valuation Re-rating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 은행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Valuation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업황 사이클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기초의 지속이 Valuation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자료: 삼성증권

2026년 2월 섹터/업종 View ⑤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긍정	통신	최민하	작년 통신 업종은 사이버 침해 사고 이슈 및 일회성 비용 반영 등으로 흔들림을 겪으며 시장 대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왔으나 현재는 안정화 국면에 진입. 다만 해킹 사고 관련 대부분의 비용은 '25년 반영이 마무리될 전망이며, '26년에는 이익 성장 재개와 함께 배당 증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 환원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또한 AI, B2B, 클라우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빅테크와의 전략적 제휴 및 관련 기업 투자에도 집중해온 만큼, 올해는 관련 성과 확대와 보유 투자 지분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	SK텔레콤
	게임	오동환	민주당 코스피5000 특위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제안함에 따라 펠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컴투스, 위메이드 등 코스닥 상장 게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 특히 펠어비스는 3월 신작 붉은사막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출시 전 주가 오버슈팅 구간에 돌입할 가능성 존재. 다만, 게임 시장 전체의 개선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만큼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단기 트레이딩 전략 구사 추천.	컴투스, NHN
	결제	김재우	2026년 중 결제사 수익성 지표는 개선된 수준을 기록할 전망. 이는 수익성의 장기적 하락 추세가 25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26년 중 금리 인하, 25년 기저 효과에 따른 매출 성장 효과 등 긍정적 요인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한편 결제주에 있어 최대 관건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모멘텀. 이는 단기적으로 결제 섹터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다만, 아직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투자에 대한 유의가 필요. 즉, 최근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을 연내 제출할 것으로 발표한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접근이 보다 유효 판단.	카카오페이, NHN KCP
	섬유 의복	이혜인	브랜드 - '26년 국내 브랜드사는 해외 진출에 따라 성장세가 가팔라질 전망. 브랜드사 중 F&F는 디스커버리로, 감성코퍼레이션은 스노우피크 브랜드를 기반으로 중국 실적이 확대 및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OEM - 26년은 미국 의류 소매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오더 확대 기대.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매 판매가 성장세가 더욱 견조한 만큼, OEM사별 고객사 포트폴리오에 따라 실적 차별화 확대될 전망. 그, 중 프리미엄 브랜드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영원무역 최선호 기업 유지.	영원무역
	유통	백재승	작년 상반기 낮은 소비 기저 및 최근 금융 자산 가치 상승 등에 기반해 내년 상반기는 소비 개선 기대. 백화점 업태의 상대적 매력에 높아보이며, 대형마트 업태 또한 경쟁 완화 기대. 신세계는 금융 자산 가치 상승 및 외국인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백화점 실적 회복이 202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반가운 백화점 매출 회복에 더해, 인천공항 면세점 DF2 사업장 철수로 내년 2분기부터 면세업 수익 개선 기대.	신세계

자료: 삼성증권

2026년 2월 섹터/업종 View ⑥

업황 판단	섹터/업종	Analyst	Key Idea	Top Picks
중립	운송	김영호	해운(현대글로벌비스): 양대 지수 모두 계절적 비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 중장기적으로 컨테이너와 벌크 수요를 넘는 신조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 공급 과잉 리스크 존재. 현대글로벌비스는 비계열사 물량 증가와 체선 완화, 단기 용선 축소로 PCTC 부문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 CKD 부문에서는 9월부터 가동되는 그룹 물량 통합 운영에 따른 매출 증가 전망. 우호적 환율 환경에 유통 부문과 CKD 부문 마진 개선 효과도 존재. 컨센서스 상 2027년 자기자본은 12.93조 원으로, 회사가 공언한 ROE 15%를 달성하려면 당기순이익 1.94조원 달성 필요. 이익증가만으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 배당 확대 전망. 최근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지분가치가 재평가 받으면서 현대차 그룹 주가 전반이 급등세를 시현했는데, 현대글로벌비스는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어 시가 총액 대비 지분 보유 비중이 가장 큼. 항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으로 LCC 자회사 포함 국제선 여객 점유율 79%에 달하는 메가캐리어 탄생. 장기적으로 국제선 여객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와 규모의 경제 달성은 자명하다고 판단. 다만 단기적으로 부진한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이를 합병 시너지를 통해 언제 개선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	대한항공
	철강/금속	백재승	철강은, 중국 철강업 구조조정 시행 여부 및 강도와 속도는 아직 확인 필요. 여전히 중국 철강 수요는 부동산 시장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긴 어렵다고 판단.(당사 추정 중국 철강 수요는 내년 0.2% 증가 예상)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 비철금속은, 광산의 타이트한 정광 공급 지속 및 글로벌 주요 광산업체들의 합종연횡으로 금속 가격 견고한 흐름 지속 기대. 중목 단에서 풍산은 구리 가격 외에도 여전히 중기적으로 견고할 방산사업 실적에 기반해, 국내 방산업종 valuation 평균과의 간극(현재 47% 할인 거래 중)을 활용한 trading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	풍산
	보험	정민기	보험 업종 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연초 보험료 인상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본질적인 손해율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실손 제도 개선 등 손해액 측면에서의 질적 변화가 동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한편, 1월 도입된 기본자본비율 규제 또한 보험사 별 추가적인 자본 관리 요소로 작용, 공격적인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 가시성을 제한하는 요소.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자본력을 이미 기존에 확보하며, 1) 해외 투자, 신사업 등 국내 보험 외 영역에서 확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회사 및, 2) 기존 안정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확보한 회사에 집중할 필요성 존재.	삼성생명

자료: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1월 28일 현재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E&A, 삼성생명와(과) 계열사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1월 2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28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